

구약논단

제 15권 4호(통권 34집) 2009년 12월 31일

이 미숙(장신대) 신 10장 12절-11장 32절에 나타난 땅 표현양식과 땅 사상 51

신명기에 '땅은 야훼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상과 '땅은 율법 순종을 조건으로 한 보상'이라는 사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본 연구는 신명기에 나타난 땅 표현양식(land formula)은 땅 사상의 통합적인 원리를 위한 신학적 장치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는 신 10: 12 - 11: 32를 예로 들어 땅 표현양식이 최종본문에서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질문하는 주석적이며 신학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땅 표현양식이 사용된 전략적인 자리와 문맥은 하나님의 땅 수여와 율법을 조건으로 한 땅 약속은 분리할 수 없는 통합적인 땅 사상을 보여준다.

Lee, Mi-Sook Land Formulas and Ideas of the Land in Deut 10:12-11:32 51

신 10장 12절 - 11장 32절에 나타난 땅 표현양식과 땅 사상¹⁾

이 미숙 | 장신대 강사

1. 서론

이스라엘과 땅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잘 함축하고 있는 용어들 중 하나가 ‘약속의 땅’이다. 폰 라트(G. von Rad)는 “육경을 통틀어 ‘야훼께서 주신 땅’과 ‘약속의 땅’이라는 용어 속에 표현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상은 없다”고 말한다²⁾.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유다 땅’과 같은 공식적인 명칭이나, 혹은 그 땅의 원래 주인들 가운데 하나인 이름을 따서 ‘가나안 땅’, ‘아모리인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³⁾ 그보다 더 많이 나타나거나 동등한 비중을

1) 이 글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로 제 82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2009. 9. 24)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2) G. von Rad, “The Promised Land and Yahweh’s Land in the Hexateuch,” E. W. T. Dicken(옮김),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London: Oliver and Boyd Ltd, 1966), 79쪽. 원제는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München: Kaiser Verlag, 1958).

3) ‘가나안 땅’(56회), ‘이스라엘 땅’(28회), ‘유다 땅’(20회), ‘아모리 사람의 땅’(3회). 그 외 창 40:15에 단 한번 나타나는 ‘히브리 땅’이 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땅을 지칭하는 고유명사 유형이 있는가 하면, 보통명사 유형으로는 **הארץ**(나할라/기업), **האדמה**(아후자/소유), **ארצה**(에루사/기업), **ארצה מורא**(모라사/기업) 등도 이스라엘 땅을 가리킬 때가 있지만 용례가 드물어 일반적인 땅 명칭이라고 말하기

차지하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내가(혹은 야훼께서) 네게(혹은 조상) 준 땅'(93회, 이하 땅 수여 유형), '내가(혹은 야훼께서) 네게(혹은 조상) 주기로 맹세한 땅'(55회, 이하 땅 맹세 유형), '네가 들어가(혹은 건너가) 차지할 땅'(23회, 이하 땅 점유 유형), '젓과 꿀이 흐르는 땅'(19회, 이하 땅 복지 유형)이다.

위의 네 가지 유형의 땅 표현양식(land formulas)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적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술어로서 일정한 표현으로 나타나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구약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신명기는 땅 표현양식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면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이나 '아모리 땅'과 같은 일반적인 호칭 대신 땅 표현양식으로 땅을 가리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받을 땅은 야훼께서 족장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야훼께서 명하신 율법 규정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분명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한다. 신명기 땅 표현양식은 신 1-34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 동안 땅 표현양식과 관련해서 신명기의 땅 사상 연구는 '땅은 야훼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상과 '땅은 율법 순종을 조건으로 한 보상'이라는 사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통시적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땅 약속과 조건적인 땅 약속의 역사적 배경이 다른 것으로 전제한다. 슈타르크 이래 자료비평에 의거한 연구들은 문서의 차이로 본다. 무조건적 땅 약속(J, 혹은 E)이 요시야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땅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거나 혹은 이미 땅을 잃어버린 포로기의 역사적 현실⁴⁾ 때문에 조건적인 땅 약속(D와 P)으로 발전했다고 한다.⁵⁾ 전승사 연구는 신명기 역사서 구조아래 Dtn과 Dtr의 차이로 보거나(펠리트)⁶⁾, 땅 약속은 족장 전승보다 출애굽 전승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자는 포로기의 현실에서

어렵다. 명사형 땅 명칭에 대해서는 W. Janzen, "Land," *ABD* (1992), 144-145쪽; 김 지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기업(אֲרָצָה)으로서의 땅 개념 연구," 『구약논단』 제 9집 (2000), 215-231쪽 참고.

4) 장 석정은 신명기에 나타난 땅의 개념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장 석정, "땅의 개념"과 포로사건, 『구약논단』 제 9집 (2000), 245-255쪽.

5) W. Staerk, *Studien zur Religions-und Sprachgeschichte des Alten Testaments* I, (Berlin: Reimer, 1899), 21-53쪽.

6) L. Peritt, "Motiv und Schichten der Landtheologie im Deuteronomium," *Deuteronomium-Studien*, (Tübingen: J. C. B. Mohr, 1994), 97-108쪽.

생겨난 것으로 설명한다(판 세터즈⁷⁾). 양식 비평적 연구는 전쟁 신탁(클락),⁸⁾ 제의 드라마(비인가드),⁹⁾ 조약 혹은 은급 양식(바인펠트)¹⁰⁾과 같은 삶의 자리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신명기에 나타난 무조건적인 땅 약속과 조건적인 땅 약속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통합적인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는 주로 문학적 접근¹¹⁾이나 윤리적 관점에서 보는 연구¹²⁾를 통해 제기되었다.

그 동안 연구사는 통시적 연구들이 주도한 가운데 그 결과들은 신명기 땅 사상의 역사적 의미와 신학적 이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론만큼이나 다양한 견해들로 인해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간 듯하다. 통시적인 연구는 땅 약속 본문, 혹은 땅 표현양식들이 후대에 삽입되거나 추가된 편집사적 경향을 보이며 2차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 따라서 이 방법론은 땅 표현양식 자체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고 그것의 해석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선행 연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신명기의 땅 주제나 표현양식을 부수적인 주제로 다루어 신명기 자체 안에서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학적인 분석에 따라 땅 사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연구들조차 신명기 역사서에 관심이 국한되어 있다. 윤리적인 시도에서도 땅 표현양식과 땅 사상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신명기의 핵심인 12 - 26장을 앞두고 율법 준수에 대한 당위성과 원리를 설명하는 신 1 - 11장을 율법 규정의 서문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
- 7) Van Seters, "Confessional Reformulation in the Exilic Period," *VT* vol. 21 (1972), 448-459쪽.
 8) W. M. Clark,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Land Promise Theme in the Old Testament," Unpublished Ph. D. Thesis,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1964).
 9) J. N. M. Wijngaards, *The Dramatization of Salvific History in the Deuteronomistic Schools*, (Leiden: E. J. Brill, 1969).
 10) M.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Eisenbrauns Winona Lake, Indiana: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1) J. Hoftijzer, *Die Verheissungen an die Drei Erzväter*, (Leiden: E. F. Brill, 1956); J. G. Plöger, *Literarkritische, formgeschichtliche und stilkritische Untersuchungen zum Deuteronomium*, (Bonn: Peter Hanstein Verlag GMBH, 1967), 60-129쪽; R. Polzin, *Moses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80), 25-72쪽.
 12) P. Diepold, *Israels Land*,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72), 76-96쪽; C. J. H. Wright, *God's People in God's Land*,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1990), 3-23쪽; J. G. Millar, "The Ethics of Deuteronomy and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the Book of Deuteronomy," Unpublished Ph. D. Thesis, (West Yorkshire: The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 1995), 25-72쪽.

문학적 단위로 보고 이것의 마지막 부분인 신 10장 12절 - 11장 32절에 나타난 땅 표현양식을 다룰 것이다.

이 단락은 서문의 결론인 동시에 신명기 율법을 소개하는 장으로 전환되어 가는 전략적인 자리에 위치한다. 더욱이 본 단락의 후반부는 땅 표현양식(신 11: 8b, 9, 10a, 11a, 17b, 21b, 29a, 31)과 함께 땅의 묘사(신 8: 10-12), 땅의 경계(신 11: 24), 땅과 관련한 진술(신 11: 13-15, 29-31) 등 땅의 문제가 다른 곳보다 집중적으로 나온다. 따라서 본 단락의 땅 표현양식을 살펴보는 일은 신명기의 땅 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땅 표현양식과 땅이라는 주제의 한정성과 본문의 범위가 넓어 심미적인 수사학적 분석보다는 전체의 구조 관계에서 본문의 내용과 줄거리, 메시지를 파악함으로써 문학적 수단으로서 땅 표현양식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 기타이(Y. Gitay)는 일찍이 한 문학단위에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그 자체보다는 전체의 구조와 메시지를 파악했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¹³⁾

다음으로는 땅 표현양식이 사용된 본문과 평행 본문이 있는 경우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계본문을 분석해 볼 것이다. 본문간의 관계와 대화에 관심을 갖는 방법론은 전통적인 유대 해석인 미드라쉬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전승사적 연구와 상호본문간 해석(intertextuality)에서 주로 사용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신명기의 관계본문들을 어떤 특별한 역사적 우선순위를 위해 결정하거나 논쟁하지 않고서 상호본문(intertext)으로 읽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종 본문에서 땅 표현양식이 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지를 질문하면서 이것은 땅 사상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촉진하려는 신학적 장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보고자 한다.

2. 구조와 내용분석

13) 예를 들면 창 22장에서 이삭을 묶는 이야기는 전체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요 주제인 약속의 성취의 관점에서 약속을 이루는데 장애요소로 둔 극적 장치라는 것이다. 이삭을 묶는 이야기는 약속의 실현에 있어 장애물이 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서, 이것은 약속의 성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려는 수사적인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Y. Gitay, "수사학적 비평," (김 은규/김 수남 역),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역사비평에서 사회과학적 비평을 거쳐 해체주의 비평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원제는 R. Haynes/S. L. McKenzie(eds.), *To each Its Own Meaning: An Introduction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225-226쪽.

본문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본문을 한 단락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¹⁴⁾. 이 단락의 통일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로 본문의 형식적인 구조¹⁵⁾와 논리적인 전개 때문이다. 본문의 권고 양식은 야훼에 대한 속성이나 그의 행사에 근거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권고를 이행해야 할 당위성으로 설득하고 있다. 신 11장 2-7절의 권고도 다른 형식이지만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야훼께서 하신 크신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 11장 8절 이후의 권고는 앞 단락에서 충분히 개진한 야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건부 권고와 경고, 복과 저주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야훼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권고하면서 약속을 전면에서 내세운다. 권고에 대한 근거와 권고에 대한 동기 부여가 함께 제시될 때 청중의 자발적인 순종의 기대를 높일 수 있으므로 두 권고 방식은 분리될 수 없다. 둘째로 본문의 권고들은 서두에 나온 포괄적인 권고(신 10: 12b-13)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신 10: 19-20; 11: 1, 8a, 13, 22, 32). 셋째로 세 부 단락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전환구들이 본문에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본문은 형식구조와 내용에 의거해 네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권고와 그와 관련한 설명이 권고에 앞서 주어지고 있다. 그 권고에 대한 근거는 주로 야훼의 속성과 과거 역사를 통해 나타난 그의 행사에 두고 있으며 그 사실을 설명하는데 역점을 둔다(신 10: 12 - 11: 7). 둘째 단락의 권고는 조건부 권고,

14) 첫째로 신 10: 12 - 11: 32를 한 단락으로 보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A. D. H. Mayes, *Deuteronomy*, 212쪽; R. D. Nelson, *Deuteronomy*, 135쪽; M. Weinfeld, *Deuteronomy 1 - 11*, 441쪽; G. A. Smith, *Deuteronomy*, 138-139쪽; T. W. Mann, *Deuteronomy*, 103-105쪽; J. G. McConville, *Deuteronomy*, 198쪽; J. H. Tigay, *Deuteronomy*, 110쪽; 폰 라트, 「신명기」 85쪽; 패트릭 밀러, 「신명기」 202-203쪽; 김 희권, 윗글, 257쪽. 둘째로 신 10: 12 - 11: 32를 한 단락으로 보지 않고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C. Steuernagel, *Das Deuteronomium*, 89쪽; 크리스텐센, 「신명기 1: 1 - 21: 9」 450-454쪽; E. H. Merrill, *Deuteronomy*, 200-205쪽; G. E. Wright, *Deuteronomy*, 153쪽. 그 외에 9장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 견해들도 있는데 로핑크도 조약 양식의 구조를 고려해 신 10: 12 - 11: 12는 9: 9 - 10: 11의 전역사(Vorgeschichte)에 이어진 기본명제의 설명(Grundsatzklärung)으로 이해한다. N. Lohfink, *Das Hauptgebot*, 219-225쪽. 특별히 크레기도 조약 양식의 특징에 의거했지만 신 10: 12부터가 아니라 신 10: 11 - 11: 25절과 신 11: 26-32의 두 단락으로 나눈다. P. C. Craigie, *Deuteronomy*, 201-213쪽.

15) 폰 라트는 본문 단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그는 본문을 일반적인 생활 율법에 적용된 조약 양식의 구조로 보았다. 폰 라트, 윗글, 86쪽. 본문을 조약 양식의 구조로 본 견해는 K. Baltzer, *The Covenant Formulary*, 36-38쪽; Craigie, 윗글, 201-213쪽 참고.

경고 등의 형식으로 주어지며 대체로 약속이 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약속은 주로 땅과 관련되어 있다(신 11: 8-25). 셋째 단락은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요구하며 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 준다(신 11: 26-30). 마지막 단락은 땅 점유와 율법 준수를 당부하는 결론적인 권고이다(신 11: 31-32).

I. 10: 12 - 11: 7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대한 권고

- ① 12-13 도입구와 포괄적 권고
 - 12a 도입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 12b-13 야훼를 경외하고...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계명 지키는 것
- ② 14-16 권고의 근거와 권고
 - 14-15 만물이 그에게 속함/조상을 사랑해 이스라엘을 택함
 - 16 마음에 활례를 하고 목을 끈게 하지 마라
- ③ 17-20 권고의 근거와 권고
 - 17-18 야훼는 주 중의 주, 정의로우심/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심
 - 19-20 나그네를 사랑하고 야훼를 경외하라
- ④ 10: 21 - 11:1 권고의 근거와 권고
 - 10: 21-22 그는 너의 찬양이며 네 하나님/하늘의 별처럼 변성하게 하심
 - 11: 1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규정, 법, 규례, 명령을 지켜라
- ⑤ 11: 2-7 권고
 - 2aa 오늘 너희는 알라
 - 2ba-6 네 자녀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
 - 7 네 눈들은 그가 하신 모든 크신 행사를 보았음

II. 11: 8-25 권고와 약속

- ① 8-9 권고
 - 8a 모든 명령을 지켜라
 - 8b-9 권고의 목적: 강성, 땅 점유, 장수 [8b, 9]16)**
- ② 10-12 땅 묘사 [10전, 11a]
- ③ 13-15 조건부 권고
 - 13 나의 명령을 듣고 야훼를 사랑하고 섬길 경우
 - 14-15 조건부 약속: 농산물과 목축으로 배부르게 하심
- ④ 16-17 경고
 - 16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지 않도록 삼가라!
 - 17 하늘이 닫히고 땅은 생산하지 못해 멸망할 것임 [17b]**
- ⑤ 18-21 말씀에 대한 권고
 - 18-20 말씀을 가까이 두고 가르치며 문에 써 두라
 - 21 권고의 목적: 너와 네 자손의 날이 길어짐 [21b]**
- ⑥ 22-25 조건부 권고
 - 22 이 명령을 철저히 지키고, 야훼를 사랑하고.. 그에게 의지할 경우

16) 진한 표시는 땅 표현양식이 들어있는 부분이며 []은 그 구절을 나타낸다.

- 23-25 조건부 약속: 광야부터 서해까지 땅 차지, 무적의 백성
- III. 11: 26-30 결단 촉구
- ① 26-28 복과 저주를 두심
 - ② 29-30 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 명령 [29a]
- IV. 11: 31-32 결론적 권고
- ① 31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라 [31]
 - ② 32 모든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라

첫째 단락에서 권고에 대한 근거는 야훼의 속성을 기본명제로 제시하고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속성과 관계있는 야훼의 구체적인 행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권고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 창조주 야훼께서(신 10: 14) 조상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신 10: 15) 그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신 10: 16). 주 중의 주이며 정의로우신 야훼께서 낮은 자들을 사랑하셨으니(신 10: 17-18) 그들도 정의를 행해야 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신 10: 20). 이스라엘의 찬송이며 하나님인 야훼께서(신 10: 21)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다(신 10: 22). 따라서 이스라엘은 마땅히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라는 결론적인 권고를 한다(신 11: 1). ‘오늘날’이라는 전환구로서 모세의 청중들은 현재의 시점으로 안내되며 그의 청중들인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과 광야생활의 경험을 통해 야훼를 아는 특별한 세대임을 명심하라는 권고를 함으로써 미래 그들의 운명을 다루는 둘째 단락을 준비하게 한다(신 11: 2-7). 야훼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그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더 많은 약속으로 동기를 부여하신다(신 11: 8-25). 이 단락에서 땅 표현 양식은 나타나지 않지만 땅의 문제는 둘째 단락에서 권고에 대한 약속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둘째 단락에서는 율법의 준수나 말씀과 관련한 권고를 하면서 그때마다 권고의 목적(신 11: 8, 9, 21)이나, 조건부로 약속(신 11: 14-15, 23-25)이 나타난다. 첫 권고에 대한 약속은 강성, 땅 점유, 장수의 순으로 나타난다(신 11: 8b-9). 야훼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목적 중의 하나인 땅 점유는 다른 약속들과 달리 땅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로 긴 부연 설명이 나와 땅 약속의 중요성을 반영한다(신 11: 10-12). 이스라엘에게 땅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8절부터 12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 6회에 걸쳐 나타는 땅 표현

양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¹⁷⁾. 둘째 권고는 조건부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약속은 야훼께서 적당한 비를 주심으로 농산물과 목축의 풍요로 만족할 것이다(신 11: 14-15). 셋째는 다른 신을 좇게 되면 야훼께서 주신 좋은 땅에서 멸망한다는 경고(신 11: 16-17)이다.

둘째 단락에서 경고는 단 두 구절로 권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해 급격히 멸망할 것이라는 전면적인 과멸로서 강하게 경계한다. 넷째 권고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 말씀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전심으로 마음에 말씀을 두고 가까이 하기 위해 팔과 이마에, 집 출입문에 말씀을 매달라고 권한다(신 11: 8-20). 권고의 목적은 자신과 후손의 장수를 위해서이다(신 11: 21). 여기서 땅 표현양식은 맹세 유형으로 나온다(신 11: 21b). 다섯째 조건부 권고에 대한 약속은 땅 표현양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요지는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는 국가적 차원의 땅 점유가 약속된다(신 11: 23-25).

셋째 단락은(신 11: 26-30) 복과 저주로서 권고하는 다른 양식으로 전환된다. 사실상 이 단락은 넷째 단락과(신 11: 31-32) 함께 1 - 11장의 결론부에 해당한다. 이 단락들은 모세가 신 1장 이래로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권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자리로서 신 1 - 11장의 종합인 동시에 이어 나오는 신명기 율법과 다른 연설들을 이어주는 전환적이며 지시적인 자리에 놓여있다.

11: 26-28절 저주와 복	28 - 30장
11: 29-30절 저주와 복 선포 의식	27장
11: 31-32절 율법	12 - 26장

두 단락에서 땅 표현양식은 저주와 복을 선포할 의식을 규정하는 곳에서 그 의식을 행해야 할 시점(신 11: 29)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편, 땅을 차지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모세의 마지막 권고(신 11: 31-32)는 신 1 - 11장

17) 첫 권고에서 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땅이 신 11: 8b-12안에 8회 등장하며 땅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5회에 걸쳐 나온다는 사실에서도 암시 된다: ארצה(하아레츠/그 땅)(신 11: 8, 9, 10:2; 11:2, 12), ארצות(하아다마/그 땅)(신 11: 9), ארצה(레리쉬타흐/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신 11: 8, 10, 11) ארצות(오타흐/그것을)(신 11: 12), ארץ(바흐/그것 안에)(신 11: 12).

을 압축하는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관계본문

본문은 신명기 율법 규정을 소개하는 서문인 신 1 - 11장을 종합하는 자리이므로 앞서 나온 내용이나 자료들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이 앞의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없다. 메이즈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신 4장으로부터 이끌어낸 단일한 단락이라고 주장한다¹⁸⁾. 바인펠트는 본문 안에는 다양한 예전적 요소들이 통합되어 있지만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어 원래의 예전 본문의 일부를 찾아 낼 수 없다고 하며 느헤미야 9장과의 관련성을 제시했다¹⁹⁾. 왕 대일과 김희권은 본문이 신 6 - 10장에 나온 교훈의 일부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다²⁰⁾. 본문에 대한 관계본문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음은 땅 표 현양식과 연관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본문의 위치가 신명기 법전의 서문을 정리하는 자리인 만큼 메이즈나 바인펠트처럼 단일 본문에 한정시키기 보다는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책으로 범위를 넓혀 찾아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 신 11장 8-17절

신 11장 8-17절의 권고는 율법 준수 및 야훼 경외를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들을 말해준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권고의 동기로서 땅 약속이 주어지고 땅 묘사가 함께 나오는 단락은 본문 외에도 신 6장 10-19절과 신 8장 11-18절이 있다. 두 관계 본문 중에서 땅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고 땅의 소산물들을 언급하면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주는 형식 구조는 신

18) 메이즈는 10: 12 - 11: 32이 4장과 공통적인 어휘와 표현, 전체적인 틀이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Meyes, 윗글, 207-208쪽. 신 4장이 율법 준수에 대한 논거를 출애굽 구원 및 호렙산에서 율법을 계시한 야훼에 둔 점과 땅 약속을 율법 준수에 대한 동기로 제시한다는 점, 땅 표현양식의 유사성 등은 메이즈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만하다. 따라서 신 10: 12 - 11: 32이 4장으로부터 중요한 문학적 형식 및 모티브를 차용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병행되는 부분은 많지 않으며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더 커 보인다. 특별히 신 10: 12 - 11: 32가 땅 주제에 더 집중하는 점은 4장과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19) 바인펠트는 신 10: 12 - 11: 32를 신 9: 9 - 10: 11과의 관계로 넓혀서 죄의 고백, 용서는 예전의 중요한 요소이며 보편주의적 신관, 이스라엘의 선택, 축복을 받은 땅에 관한 묘사 등은 느 9장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말했다. M. Weinfeld, 윗글, 453-454쪽.

20) 왕 대일, 「다시 듣는 토라」, 226-228쪽; 김 희권, 윗글, 257쪽.

8장 11-20절에 더 유사하다.

요단 동쪽 땅에 진입	11: 8-9	8: 7a
땅 묘사	11: 10-12	8: 7b-10
율법 준수 명령	11: 13a	8: 11a
땅의 소산물로 배부름	11: 14-15	8: 12-13
우상 숭배 경고	11: 16-17	8: 19-20

신 8장과 비교해 볼 때 신 11장 8-17절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땅이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땅이라는 점유 유형으로 나오는 점과(신 11: 8, 10, 11) 땅에 대한 독특한 묘사에 놓여 있다(신 11: 10-12).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땅 점유의 주체로 나타나는 표현양식이 3회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 점유의 일이 임박했음을 고지한다. 신 8장 7-9절까지에서 나타난 땅은 물과 자원이 풍부해 매우 비옥한 땅으로 묘사되고 있다. 8장에서 특별히 물과 광물자원에 관한 약간 과장되었다고까지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지리적인 묘사는 신 11장 10-12절에서 현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오직 '비'에 의존하는 땅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비를 주시는 야훼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신 11: 14-15). 이러한 땅의 제한성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이 신 11장 땅 묘사에 있어서 고유한 점이다.

2) 신 11장 18-21절

말씀 교육에 대한 권고인 신 11장 18-21절은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신 6장 6-10절과 비교할 수 있다. 두 본문은 먼저 말씀 교육을 언급하고 있으며, 신 11장 18-20절은 6장 6-9절을 거의 문자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또한 두 본문은 말씀 교육에 이어서 맹세 유형의 땅 표현양식을 포함하는 점도 공통적이다(신 11: 21과 산 6: 10). 더욱이 신 6장 10-11절은 맹세 유형으로 묘사된 땅에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에 대한 예고가 그려져 있으며 신 11장 21절도 맹세 유형으로 묘사된 땅에서 장수하는 삶이 약속으로 나온다. 그러나 신 11장 18-21절이 신 6장 6-11절의 배열과 구성이 유사한 공통점을 보이지만 땅 표현양식이 사용된 문맥은 대조적이다.

신 11장 21절의 땅 표현양식은 앞서 언급된 말씀 교육을 준수한 것에 대

한 약속으로 나타나 말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반면 신 6장 10절의 땅 표현양식은 앞서 언급된 말씀 교육에 대한 권고(신 6: 6-9)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범하기 쉬운 잘못들에 대한 경고(신 6: 10-19)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신 6장 10절의 맹세 유형으로 묘사된 땅은 이스라엘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때의 시점을 가리킨다.

3) 신 11장 22-25절

신 11장 22절에서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조건부 권고에 대한 약속은 땅 표현양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땅 점유와 그들이 차지하게 될 영토의 범위를 언급하고 있다.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한 땅의 약속과 영토의 범위가 함께 나오는 부분은 출 23장 20-31절과 비교할 수 있다. 출 23장 20-31절은 앞서 가나안 땅 점유를 위한 권고인 신 7장뿐만 아니라 신 11장과도 부분적으로 관계 본문을 찾아볼 수 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두 본문은 율법에 대한 청중을 조건으로 하여(신 11: 22; 출 23: 22a) 땅 점유에 대한 약속과(신 11: 23-24; 출 23: 20, 22b-23) 영토의 범위를 기술하고(신 11: 25; 출 23: 31) 이스라엘이 무적의 백성이 될 것임을 공통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두 본문은 구절의 배치가 다르고 일부 내용이 다르며²¹⁾ 이스라엘이 미래에 차지하게 할 땅의 경계에 대한 범위를 묘사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

출 23장의 영토 경계는 바다 경계인 갈대바다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로, 육지 한계선은 광야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로 대체로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범위로 그리고 있다. 신 11장의 영토 경계도 남쪽인 광야로부터 출발하여 북쪽에 있는 레바논까지 그리고(신 11: 24ba) 다시 남북 경계로 광야와 레바논을 들고 있고(신 11: 24ba), 이스라엘부터 동북방향에 위치한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해 서해까지를 영토 범위로 정한다.

두 본문에서 공통적인 경계로 등장하는 지명은 '광야와 그 강(유브라데)'이다. 광야는 남쪽의 경계라는 사실은 대체로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나 유브라데 강을 동쪽 경계로 볼 것인가 북쪽 경계, 혹은 북동쪽으로 볼 것인가의

21)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급격한 정벌로 인해 거주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우려해 적의 일부를 남겨두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나(출 23: 29-30) 신 11장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대신 신 11장처럼 가나안 땅의 점유 과정과 관련 있는 권고인 신 7: 17-24에는 그러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문제는 논란이 있다. 먼저 언급된 남북 방향의 광야-레바논의 범위를 고려한다면 유브라테 강과 서해는 그와 짝을 이루도록 하는 동서 방향의 범위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출애굽기에서도 '광야와 유브라테 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영토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칼라이(Z. Kallai)는 두 본문의 영토 범위는 창 15장 18절에 나타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테 강까지'라는 경계 묘사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신 1: 7; 수 1: 4)²²⁾. 그가 지적한 것처럼 유사한 영토경계를 보여주는 세 본문들이 모두 약속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은 현실적인 경계라기보다는 이상적인 개념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땅 표현양식의 역할과 의미

본문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으로 시작하여(신 10: 12a) 즉각적인 답변이 5개의 동사구들로 주어졌다(신 10: 12b-13). 그것은 야훼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따르며,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율례를 지키는 일이다. 이 총괄적인 권고는 본문에서 야훼의 속성과 그의 행사에 근거한 권고로, 조건부 권고와 말씀에 대한 권고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땅 표현양식은 야훼께서 출애굽과 광야생활을 통해 보여주신 크신 일들에 대한 권계를 알라는 권고(신 11: 2-7)와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권고로부터(신 11: 8a) 약속으로 형식적인 구조가 바뀐다. 또한 시간은 출애굽과 광야생활의 경험이라는 과거 시점으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임박한 미래의 시점으로 옮겨진다. 땅 표현양식은 이 전환적인 자리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땅 점유의 주체자로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점유 유형의 잇따른 반복은(신 11: 8, 11, 12) 특별히 권고의 내용에 대한 시점과 공간적 배경의 이동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세의 명령에 대한 첫째 약속은 이스라엘의 강성과 땅 점유와 장수, 세 가지이다(신 11: 8-9). 율법준수를 조건으로 주어진 약속들이 땅과 장수, 번영 등으로 나타난 것은 4장 이래로 계속 반복된 것이지만, 본문처럼 땅 약속에 이어 땅에 관한 묘사로 긴 설명을 덧붙이고 다른 권고들에 대한 약속으로 땅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신 1 - 11장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약속의 동기로서 땅의 중요성을 짐작

22) Z. Kallai, "The Boundaries of Canaan and the Land of Israel in the Bible," 116쪽.

하게 한다. 신 11장 10-12절은 땅 점유의 약속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가서 차지할 땅을 묘사하는데 땅 표현양식을 사용한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대조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농사의 관건인 물을 어떻게 공급받느냐의 문제에 놓여있다. 애굽은 농사를 짓기 위해 인간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관개수로(灌溉水路) 방식인 반면(신 11: 10b) 이스라엘은 오직 강우량에 의존해야 하는 농업방식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시는 땅'(신 11: 11)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힘없어도 비로 충분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²³⁾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땅이라는 뜻도 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땅과 인간의 힘이 더 중요한 애굽 땅의 대비는 이스라엘에게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운명이 전적으로 야훼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약속의 영역은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에서의 산업과 관계된 것으로 적합한 때에 내리는 비로 인해 땅의 소산물은 풍성하고 가축이 번성해서 부(富)를 이룰 것이라는 보장이다(신 11: 13-15).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좇아가 야훼를 배반하게 되면 야훼께서 비를 주시지 않아 결국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신 11: 16). 먹을거리를 내지 못하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없게 되어 멸망하며 이는 곧 땅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신 4: 25-27; 신 8: 19-20)²⁴⁾. 신 11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배교로 임할 '야훼가 주실 땅'에서의 멸망은 신 11장 9절의 이스라엘이 야훼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한다.

셋째 약속은 가정의 말씀 교육과 관련한 권고에 대한 약속으로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서의 장수가 보장된다(신 11: 18-21). 미래의 세대들은 현세대들처럼 야훼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으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인도를 받지 못할 것이다. 대신 그들에게 삶의 지표가 될 것은 야훼의 명령들, 곧 말씀과 그의 약속이다. 미래의 세대들도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조상들이 받은 땅에서 안정된 삶을 보장 받을 것이다. 땅은 미래의 세대들이 과거의 세대와 연결되어있다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땅 맹세 유형은 과거세대와 미래세대가 야훼의 율법을

23) McConville, 윗글, 204쪽.

24) 윗글, 204쪽; M. Weinfeld, 윗글, 455쪽.

수행하는 역사적인 공간(空間)인 동시에, 땅의 수여자인 야훼를 경험하는 신학적 공간으로서 땅을 해석할 수 있게 한다.

넷째 권고(신 11: 22)는 서두에 나온 '야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연상하게 하며(신 10: 12b-13)²⁵⁾ 그에 대한 순종은 국가적 차원으로서 땅 점유와 무적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동반한다. 전쟁 승리와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테 강에서 서해까지 동서남북으로 뻗은 광활한 영토를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에 있어서 야훼의 주도권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신 11: 23, 25). 특별히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민족들에 대한 승리는 그들의 의(義)를 주장할 수 없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신 11: 23). 신 11장 8-25절까지에서 야훼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주어지는 권고에 대한 약속들이 근본적으로 야훼의 통제아래에 놓여있다는 언급은(신 11: 12, 14, 17, 23, 25) 인과응보 원리보다 앞선 원리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의도는 이스라엘이 야훼께 순종한 댓가로 받을 보상을 말하기에 앞서 그들이 야훼께 순종해야 할 이유를 이미 앞서 보여주신 그의 속성과 구체적인 구원 행사로부터 찾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신 10: 12 - 11: 7).

신 11장 26-30절은 짧게 요약된 복과 저주문과 그것을 선포할 의식과 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스라엘은 복과 저주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결단을 요구받는다. 여기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이 나타나는데 점유 유형의 사용은 이스라엘의 선택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복과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길게는 신 27장 11절 - 28장에서 나타나며 모세의 언약 연설 말미에 요약의 양식으로 다시 한 번 나타난다(신 30: 15-20). 신 11장 26-28절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신 30장 15-20절은²⁶⁾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이 두 번 나타난다(신 30: 16, 18). 신 11장 26-30절의 복과 저주문은 그것이 선포될 장소와 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록 본문에서 세겜이라는 지명이 명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마을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북쪽에 있는 에발산이 서로 가까이 있어 본문에서 언급한 장소는 세겜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땅 약속을 처음 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다(창 12: 6-7).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

25) Nelson, 윗글, 140쪽; McConville, 윗글, 204쪽.

26) Nelson, 윗글, 350쪽; McConville, 윗글, 205쪽.

아가야 할 삶의 두 길을 선포하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장소로서 세 겹 만큼 극적인 장소도 드물다.

신 1 - 11장의 마지막은 요단강을 건너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과 함께 율법 준수에 대한 권고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신 11: 31-32)은 매우 의미 심장하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이후 순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해야 하며 그곳에 정착해야 한다. 이 구절에서 땅 수여 유형을 통해 땅 수여자로서 야훼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의 땅 점유에 나타날 야훼의 주도권을 상기하게 한다(신 11: 31). 땅을 차지한 다음 율법을 지키라는 권고는 이스라엘 땅 점유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세를 통해 야훼께서 주신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는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신 11장 31-32절처럼 땅 주제가 율법과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양자는 불가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없이는 땅을 차지할 수 없으며 땅 없이는 율법을 수행할 수가 없다.

4. 요약 및 결론

신명기 법전을 앞둔 본문은 신 1장에서부터 모세가 가르친 권계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자리이다. 첫 단락에 나오는 모세의 권고는 야훼에 대한 기본명제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의 행사에 근거한다(신 10: 12 - 11: 7).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신 10: 16) 야훼께서 그들을 알던 날로부터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역사에서 보여준 그들의 배교 성향 때문이다(신 9: 7, 24). 신 11장 8-25절까지 율법에 대한 준수를 조건으로 주어지는 땅과 관련한 약속들은 근본적으로 야훼의 통제아래에 놓여 있으며 주도권이 그에게 있음을 거듭 말하고 있다(신 11: 12, 14, 17, 23, 25).

약속으로 바뀌는 신 11장 8절의 전환적인 자리에서 땅 표현양식은 나타나기 시작한다. 땅 점유의 주체자로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점유 유형의 잇따른 반복은(신 11: 8, 11, 12) 권고의 내용에 대한 시점과 공간적 배경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후손들과 관련되어 나타난 땅 표현양식(11: 9, 21)은 과거세대와 미래세대가 야훼의 율법을 수행하는 역사적인 무대요, 땅의 수여자인 야훼를 경험하는 신학적인 무대로 땅을 해석하게 해준다. 신 1 - 11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신 11장 31-32절에서 땅을 차지한 다음 율법을

지키라는 권고는 땅 점유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세를 통해 야훼께서 주신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는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땅 수여자로서 야훼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의 땅 점유에 나타날 야훼의 주도권을 상기하게 한다(신 11: 31).

율법을 준수하는 길은 야훼에게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로서 이 길은 어느 민족도 걸어보지 못한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삶의 터전이 될 땅 점유는 이스라엘의 업적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야훼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구원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의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땅 약속과 율법 준행을 조건으로 한 땅 약속이 전자에서 후자로, 혹은 그 반대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통합적인 이해였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 참고문헌

- 김 지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기업(גִּבּוּר)으로서의 땅 개념 연구,” 「구약논단」 제 9집 (2000), 215-231쪽.
- 김 회권, 「모세오경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왕 대일, 「다시 듣는 토라: 설교를 위한 신명기 연구」 (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1998).
- 장 석정, “‘땅의 개념’과 포로사건,” 「구약논단」 제 9집 (2000), 235-255쪽.
- 기타이, “수사학적 비평,” (김 은규/김 수남 옮김),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역사비평에서 사회과학적 비평을 거쳐 해체주의 비평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11-233쪽. 원제는 *To Each Its Own Meaning: An Introduction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s*, R. Haynes/S. L. McKenzie(ed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 크리스텐센, 「신명기 1:1-21:9」 (정 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3). 원제는 D. L. Christensen, *Deuteronomy 1:1- 21:9 (WBC^d)*,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 패트릭 밀러, 「신명기」 (김 회권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는 P. D. Miller, *Deuteronom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 폰 라드, 「신명기(국제성서주석 5)」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원제는 Von Rad, G.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Baltzer, K., *The Covenant Formulary*. D. E. Green(trans.), (Oxford: Basil

- Blackwell, 1971).
- Clark, W. M.,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Land Promise Theme in the Old Testament," Unpublished Ph. D. Thesis(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1964).
- Craigie, P. C., *The Book of Deuteronomy*(NIOT), (Grand Rapids: Eerdmans, 1976).
- Diepold, P., *Israels Land*,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72).
- Driver, S. R., *Deuteronomy*, (Edinburgh: T & T Clark, 1960).
- Hoftijzer, J., *Die Verheissungen an die Drei Erzväter*, (Leiden: E. F. Brill, 1956).
- Janzen, W., "Land," *ABD* (1992).
- Kallai, Z., "The Boundaries of Canaan and the Land of Israel in the Bible: Territorial patterns in Biblical Historiography," *Biblical Historiography and Historical Geography*, (Frankfurt: Peter Lang, 1998), 111-129쪽.
- Lohfink, N., *Das Hauptgebot: Eine Untersuchung literarischer Einleitungsfragen zu Dtn 5-11*, (Roma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63).
- _____, *Die Landverheissung als Eid: Eine Studie zu Gn 15*, (SBS 28),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67).
- Mann, T. W., *Deuteronom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 Mayes, A. D. H., *Deuteronomy*,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Pub. LTD, 1991).
- McConville, J. G., *Deuteronom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2002).
- Merill, E. H., *Deuteronomy (NAC)*, (Broadman 7 Holman Publishers, 1994).
- Millar, J. G., "The Ethics of Deuteronomy and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the Book of Deuteronomy," Unpublished Ph. D. Thesis, (West Yorkshire: The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 1995).
- Nelson, R. D., *Deuteronomy*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Perlitt, L., "Motiv und Schichten der Landtheologie im Deuteronomium," *Deuteronomium-Studien*, (Tübingen : J. C. B. Mohr, 1994), 97-108쪽.
- Plöger, J. G., *Literarkritische, formgeschichtliche und stilkritische Untersuchungen zum Deuteronomium*, (Bonn: Peter Hanstein Verlag GMBH, 1967).
- Polzin, R., *Moses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80).

- Smith, G. A., *The Book of Deuteronomy*, (London: The Syndics of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 Staerk, W., *Studien zur Religions- und Sprachgeschichte des Alten Testaments I*, (Berlin: Reimer, 1899).
- Steuernagel, C., *Das Deuteronomium*, (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1923).
- Tigay, J. H.,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 Van Seters, "Confessional Reformulation in the Exilic Period," *VT* 21 (1972), 448-459쪽.
- Von Rad, G., "The Promised Land and Yahweh's Land in the Hexateuch,"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E. W. T. Dicken(trans.), (London: Oliver and Boyd Ltd, 1966), 79-93쪽.
- Weinfeld, M., *Deuteronomy 1-11 (AB)*, (New York: Doubleday, 1991).
- _____,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School*, (Eisenbrauns Winona Lake, Indiana: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Wijngaards, J. N. M., *The Dramatization of Salvific History in the Deuteronomic Schools*, (Leiden: E. J. Brill, 1969).
- Wright, C. J. H., *God's People in God's Land*,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1990).

검색어

땅 약속

땅 표현양식

무조건적 약속

신명기

조건적 약속

투고일: 2009년 10월 6일

심사일: 2009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3일

Land Formulas and Ideas of the Land in Deut 10:12-11:32

Mi-Sook Lee

Lecturer at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D.

The 'land formulas' such as **הָאֲרֶץ אֲשֶׁר יְהוָה נָתַן** (the land that Yahweh has given), **הָאֲרֶץ אֲשֶׁר נִשְׁבַּע יְהוָה** (the land that Yahweh swore), **הָאֲרֶץ אֲשֶׁר אַתָּה בָּא לְרִשְׁתָּהּ** (the land that you are coming/crossing to possess), and **אֲרֶץ זָבַח חָיִל וְחֵלֶב**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re apparently and frequently found in the book of Deuteronomy.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the unconditional promise of the land and the conditional one subject to the obedience to the law are not separate departments but an integrate theological principle combined - specifically, as an example, Deut 10: 12 - 11: 32 are examined here. It asks, in terms of commentarial and theological tasks, why a certain land formula is located in a particular text. First of all, it examines Deut 10: 12 - 11: 32 analysing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text's literary units in order to see how the land formulas articulate the theme of 'land.' Then, it observes intertextuality of the textual units in which the land formulas are employed, in and out of the book of Deuteronomy. And, in the end,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formulas are discussed.

In Deut 10: 12 - 11: 7, Moses' commandments have their authority on the foundation of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YHWH and His acts. Therefore Israel is well supposed to obey the law, responding to YHWH's salvific and

merciful deeds to her. In Deut 11: 8-25 it is repeatedly emphasized that the conditional promises subject to the obedience to the law are under the authority of YHWH and His management(Deut 11: 12, 14, 17, 23, 25). From on Deut 1: 8, where there is a shift to 'promise', the land formulas set to appear. The sequential repetitions of the types of occupation where Israel is the occupier(Deut 11: 8, 11, 12), they are actually employed to signify a point of time and the move of location of what described in the commandments. The land formula that concerns of the descendants(Deut 11: 9, 21) makes it possible to read that the old and new generations are all historical entities who observe YHWH's law and the land is where one may have a theological experience of YHWH, the endower of the land. Deut 11: 31-32, which is a conclusive part of Deut 1-11, clearly indicates that the commandments encouraging to obey the law after occupying the land in fact aim to address that the ultimate goal of occupying the land is observing YHWH's commandments and stipulations. Moreover, mentioning YHWH as an endower of the land, it reminds of the authority of YHWH that will be working manifestly in occupying the land (Deut 11: 31).

Observing the law is to walk on the way to life by obeying YHWH, and this is an innovative way of living no other nations ever walked on. The occupation of the land, the foundation of this way of living, is not subject to the works or achievements of Israel, but would be realized only when the Israelites spontaneously respond to the salvation and mercy YHWH has shown to them. In conclusion, the unconditional promise of the land and the conditional promise subject to the observation of the law, probably they are not separate ideas developed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or vice versa, by the need of a certain historical context, but an indigenous integral idea composed from the very beginning.

Keywords

Conditional promise • Deuteronomy • Land formulas
Promise of the land • Unconditional promise